



KOSPI, 단기 상승 가능 폭 제한적

1. KOSPI, 박스권 회귀

- KOSPI, 지난 주 조정 과정에서 작년 3월 저점에서 그은 장기 상승 추세선과 15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해 장기 추세는 유효한 상황
- 지난 6월 말에 신고가 경신 후 돌파된 이전 고점대의 지지에 실패해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모습
- 당분간 이전 저점대인 3,200pt와 전고점인 3,316pt 사에서 횡보하면서 방향성 모색 과정 진행될 가능성 높아진 모습

2. 양호하지만 제한적인 대외 변수의 흐름

- 일본 니케이225지수, 5월 저점대 수준에서 강하게 반등 중이지만 이미 120일 이평선 이탈한 가운데 저항인 상황. 하락 추세선 근접해 상승 가능폭 제한적
- 대만 가권지수, 신고가 경신 후에 상승 탄력 제한적. 5월 중에 이미 120일 이평선 하회한 후의 상승이라 장기 상승 추세 약화되는 상황
- 달러화 지수 단기로 조정 중이지만 장기 바닥권 형성 과정에 있어 하락 가능 폭 제한적

3. 외국인 선물 매수, 추세로 보기 어려운 수준

- 외국인 KOSPI200 선물 시장에서 이번 주 1.4만 계약 순매수해 누적 순매수 1.1만 계약 수준. 3만 계약 넘어야 추세적 매수로 볼 수 있음
- S&P500지수 신고가 경신 중이지만 박스권 목표치를 고려하면 단기 상승 가능 폭 1.5% 수준으로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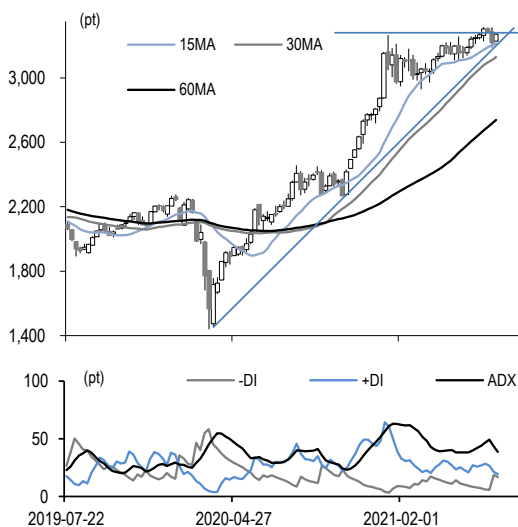
1. KOSPI, 박스권 회귀

KOSPI가 지난 주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락했지만 이번 주에는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틀째 강하게 반등했다.

지난 후반에 KOSPI가 강하게 하락했지만 장기 추세상 중요한 분기점에서 반등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전주말 저점은 15주 이평선이 위치한 가격대이자 작년 3월 저점에서 그은 상승추세선이 위치한 가격대로 [차트1]에서 볼 수 있듯이 추가로 하락했다면 장기 상승 추세가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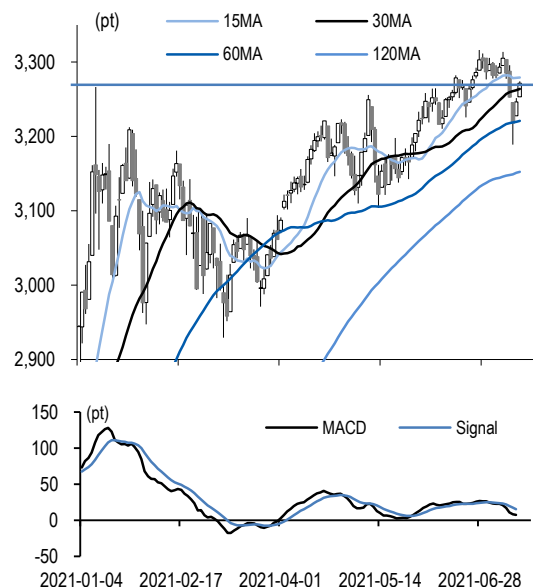
다만 일봉상으로는 6월 말에 1월 중 고점대인 3,266pt를 돌파하면서 중기 조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상승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지만 전주말 하락으로 다시 중기 횡보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신고가 경신 후 강한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 돌파된 이전 고점대가 지지대로 작용하지만 돌파된 전고점 지지에 실패해 당분간 강한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기 반등이 이어지면 6월 고점대인 3,316pt 수준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최근 단기 저점대인 3,200pt가 지지대로 작용하면서 방향성 모색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차트1] KOSPI 주봉 DMI, 2020년 3월 저점에서 그은 추세선과 30주 이평선 지지되면서 반등 시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KOSPI 일봉, 1월 고점대 돌파 후 다시 되돌려 추세 상승 국면 중단 가능성 높아진 상황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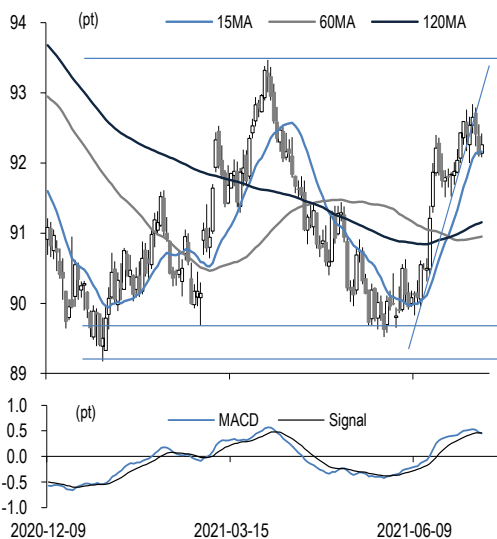
2. 양호하지만 제한적인 대외 변수 흐름

KOSPI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대외 변수의 흐름도 우호적으로 형성되었지만 긍정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

[차트4]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일본과 대만 등 주요 아시아 증시도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들 증시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 폭이 제한적인 모양이다.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5월 저점대가 지지되면서 반등한 점 긍정적이지만 이미 120일 이평선이 하락 전환되면서 저항으로 자리잡았고, 상방에 하락 추세선의 저항대 존재해 추가 상승 가능 폭 제한적인 모양이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신고가 경신 국면이지만 전고점 돌파 후 7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음봉이 형성되어 매수세 유입이 제한적이고, 이미 지난 5월 조정 과정에서 120일 이평선을 하회한 바 있어 장기적인 상승 탄력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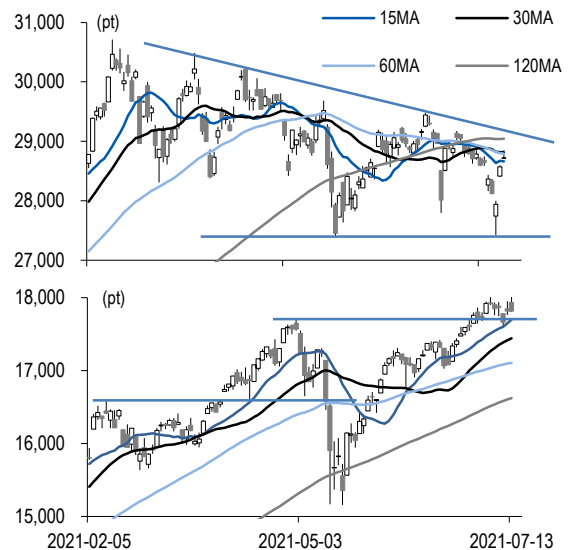
[차트3]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전 고점 부근에서 상승 추세선 이탈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닥권 형성 후 횡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고점인 93.5pt를 돌파하면 장기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모양이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의 긍정적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 높다고 판단된다.

[차트3] 달러 인덱스 일봉, 이전 고점대에서 상승 탄력 둔화되었지만 장기 바닥권 형성 중인 모습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니케이225, 대만 가권지수 일봉, 중요한 지지대에서 반등중이지만 상승 탄력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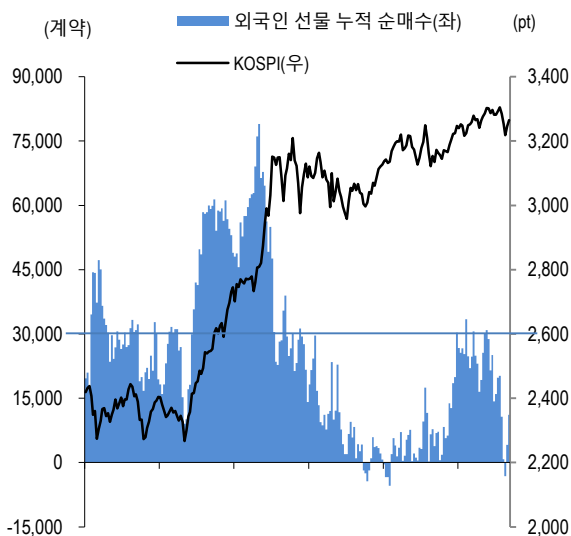
자료: Check,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외국인 선물 매수, 추세로 보기 어려운 수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다. 지난 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1.9만계약 순매도하면서 전주말에는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4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순매도를 기록했다. 이번 주에는 이를 간 1.4만계약 순매수하면서 누적 포지션이 1.1만계약으로 증가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작년 11월과 같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때에는 누적으로 3만계약 이상 순매수가 쌓이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에도 6월 말에 3만계약을 소폭 상회한 후에 다시 줄기 시작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외국인 선물 순매수는 본격 상승보다는 박스권 내에서의 작은 상승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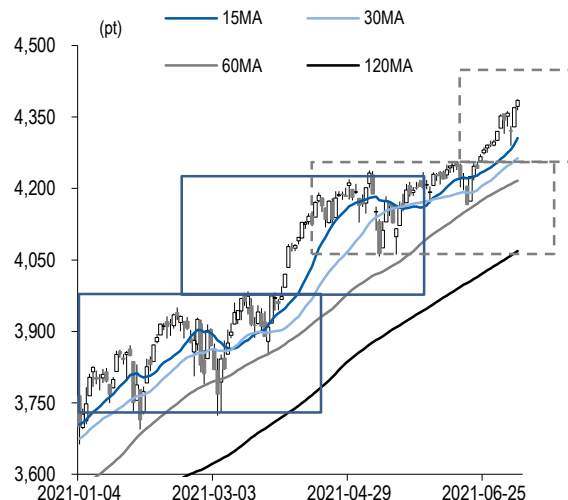
한편 미국 S&P500지수가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증시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에 신고가 경신 후에 3%가량 오른 모양이다. 신고가 경신 국면에서 횡보 당시 박스권 크기를 상승 목표로 볼 수 있는데, [차트5]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2~3월 조정 당시의 박스권 크기만큼 4월에 상승한 바 있다. 지난 5~6월 박스권 크기를 기준으로 상승목표를 설정하면 현재 가격대에서 약 1.5% 정도 남은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증시 상승의 긍정적 영향도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차트5]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와 KOSPI, 전일까지 약 1.1만 계약 순매수. 3만 계약 넘어서야 추세로 볼 수 있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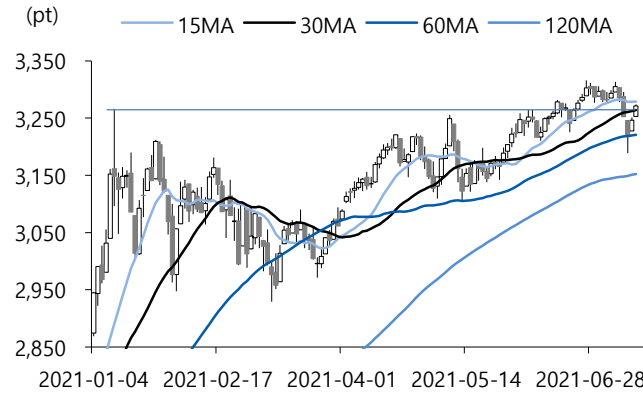
[차트6] 미국 S&P500 지수, 신고가 경신 중이지만 박스권 목표치 고려할 때 약 1.5% 수준 상승 여력 존재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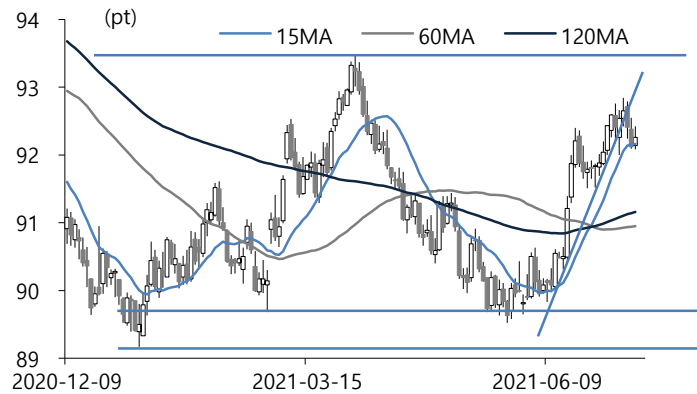
Key Chart

KOSPI 일봉, 1월 고점대 돌파 후 다시 되돌려 추세 상승 국면 중단 가능성 높아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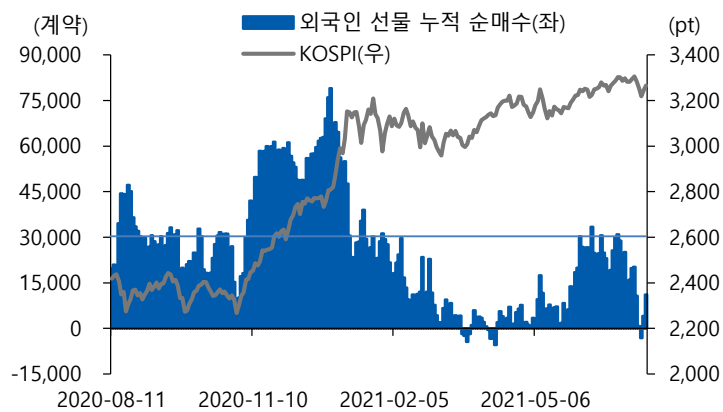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달러 인덱스 일봉, 이전 고점대에서 상승 탄력 둔화되었지만 장기 바닥권 형성 중인 모습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와 KOSPI, 전일까지 약 1.1만 계약 순매수. 3만 계약 넘어서야 추세로 볼 수 있음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